

돈가방 주위 주인 찾아준 최은혁 학생, 경찰 표창



길에서 돈가방을 주위 주인에게 찾아준 고등학교 2학년 최은혁 학생이 4일 익산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익산 성일고등학교 2학년 최은혁 학생이 4일 익산경찰서로부터 표창장(모범학생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은혁 학생은 지난 2월 23일 오후 1시경 익산 황등 시북마을을 발걸음에서 돈가방을 주위 112에 신고한 뒤, 황등경찰서를 찾아 주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 돈가방에는 황등 시북마을에 사는 A씨가 잃어버린 5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이 돈은 힘겹게

살아가는 할머니의 전 재산이었다고 한다.

최은혁 학생은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회에, 저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교양교육원, 교양교육 세미나 개최

호원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4일 6층 3층 회의실에서 '교양 교과목 비대면 수업 방식의 공유와 향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0 교양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창의인재대학 교양과 전임 교수 및 강사 등 대학의 교양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교양과 이상수 교수(English Reading & Writing)의 '밴드(NAVER BAND)를 사용한 비대면 수업', 문영수 교수(독서와 토론)의 '줌(ZOOM)을 사용한 비대면 수업', 이강하 교수(우리말과 글쓰기)의 '호원허브(H-HUB)를 사용한 비대면 수업'의 수업방식을 소개하고 공유하며 참석자들과 함께 Q&A 시간을 가졌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발 농촌 일손부족 해소 '구슬땀'

전주시,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의 106명의 영농지원반 통해 42개 농가에 293명 인력 지원



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 인근로자가 감소함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까지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전주시농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와 연계해 농번기 인력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60여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출입이 중단된 데다가 고용허가제 장기취업(E-9) 외국인 인력마저 1월 초 208명에서 4월말 현재 134명으로 36%나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시는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수와 채소 2개 분야 106명의 영농지원반을 운영해서 지난 달 말까지 42개 농가에 293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시는 또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자 모집창구를 설치하고 대학생과 일반인 자원봉자를 모집해 경제여건이 열악한 단독세대 여성농업인과 고�령·장애농업인 27개

농가에 242명의 봉사자를 지원하는 등 총 69농가에 535명의 인력을 지원하였다. 더불어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관내 농업 관련 기관에서 지난 20일부터 매주

과수영농 현장에서 열매수거와 봉지싸우기 등 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는 과수농가의 봉지싸기 작업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전주시지역의 170여 개의 배재농가와 440여 개의 복숭아 재배농가에 인력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확대와 농업기술센터, 시 유관기관 소속 직원들의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확대하는 등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62개 농가에 이앙기, 승용제초기 등 농기계를 지원하고 40개 농가에는 중소형 관정(우물)을 제공기도 했다.

나아가 농촌마을에 공동급식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으로 여성농업인들의 근로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디자트 가구 카페, 코로나19 성금 1000만원 기탁

전주시지역의 한 업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4일 전주시 중앙동 소재 디자트 가구 카페(대표 최은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최은태 디자트 가구 카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살펴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남원시, 꽃집협회 코로나19 특별성금 기탁

남원시는 관내 꽃집협회(회장 김영복)가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꽃집협회가 특별모금에 동참한 것은 매우 소중한 기탁임과 동시에 주위의 큰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꽃집에서 나눔을 실천해주시니 감사하디며, 꽃집회원들이 정말로 꽃같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예수병원, '1차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1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99.6점의 우수한 점수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

심평원에서 이번에 첫 번째로 평가해 발표한 마취 적정성 평가는 마취 영역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안전관리 기반 마련 및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인력을 평가하는 구조부분과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는 과정부분, 마취 중·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는 결과부분 등 3개 부문으로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 등 총 13개의 지표를 평가했다.

예수병원은 마취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회복실 운영을 비롯해 마취 특수장비 완벽 보유, 인력충족, 마취 전 환

자평가 100%, 마취중·후 정상체온 유지 99.7%, 마취 약물 안전관리 질향상활동 100% 등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마취 전 영역에서 가장 안전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 의료진들이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환자경험중심의 세심한 마취환자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 마취적정성 평가가 1등급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마취적정성평가 평가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02개소 등 전국 종합병원 이상 총 344개소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입원해 마취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김윤성 기자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 천마터널 현장행정 진행

남원소방서는 4일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이 현장행정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와 원주·순천 고속도로의 천마터널에서 터널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천마터널은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을 연결하는 터널로, 호남에서 가장 긴 터널이자 전국에서 7번째로 긴 터널로 상행 길이는 3,987m이고 하행 길이는 3,944m이다.

이번 현장행정에서는 천마터널 내 ▲통제시스템 및 소방·방재시설 현황 확인, ▲재난발생 시 터널 진출입 및 대응방안 검토, ▲무선통신보조설비 및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무선통신보조설비 활용 무선통신 상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교원상담 교육 실시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4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교원들이 상담과 관련해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생에 맞는 대화법과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음 읽기와 마음 보듬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는 30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교원상담'이라는 주제로 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에 의해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 범농협, 적상면 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실시

6월 농번기를 맞아 NH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황석관), 무주농협(조합장 광동열), 무주반딧불초공법인(대표이사 김석중) 및 전북지역본부 농촌지원단 임직원 등 26명은 4일 적상면 복숭아작목반 소속 5개 농가를 방문하여 2020년 4차 무주군 범농협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농촌일손돕기에는 자원봉사자 8명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정부 인터넷 '1365 자원봉사포털'에 일손돕기를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며, 과일 착과와 벌레먹기 방지를 위한 복숭아 봉지싸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b>전주매일</b> www.jmaeil.com 2020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주)전주매일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전주매일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308-6674	남원지사 032-336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955	김제지사 547-6955	임실지사 010-9642-2726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955	진안지사 433-3064
효리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032-038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38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22-6157
	익산지사 659-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재경산동면향우회, 여름 병해충 예방 살충제 신동면에 기탁

남원시 산동면사무소는 4일 재경산동면향우회 이훈 회장은 여름 병해충 예방을 위해 달라며 파리·모기용 살충제 1,120개(420만원 상당)를 물품으로 기탁했다.

기탁된 모기약은 관내 15개 마을 1,031세대, 마을 경로당 및 유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발생 등 경기불황속에서도 잊지 않고 고향을 위해 물품을 기탁해 더욱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훈 회장은 "산동면 고향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철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담아 모기약을 기탁 했으며, 산동면 마을사랑 운동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장진숙 산동면장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산동면을 위해 온정의 마음을 보내 주셔서 고향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U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